

한국여성재단-팩스통신

=====

수 신	한국여성재단 박영숙 이사장님께
발 신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장미애 대리
발 신 일	2007. 05. 22(화)
제 목	[프레이션안-한국여성재단]언론공동캠페인에 실린 원고 송부의 건
내용 요청사항	1. 한국여성재단과 프레이션에서 함께 진행하는 언론공동캠페인을 통해 프레이션에 실렸던 원고를 보내드립니다. 2. 보내드리는 원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대한민국의 행복지수를 높이자 - 방송인 김미화 (2)'빈곤의 여성화' 극복하려면 - 남윤인순 대표 (3)여성이 웃어야 그 사회가 웃는다 - 여성학자 오한숙희 3. 이번 주 금요일에 프레이션에 실리게 될 원고는 <u>이화여대 조형 교수님</u>께서 '여성리더십'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형 교수님께서 원고 초안을 2일 후에 보내주시기로 하셨기에 원고가 오는 대로 이은희 팀장이 이사장님께 보내드릴 것입니다. 4. 감사합니다. 끝.
총 매수	매수 : 총 7매(표지포함)

[프레스리안-여성재단 공동캠페인]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를 높이자" - ①

김미화/방송인,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

최근 한국사회의 화두는 단연 행복이다. 서울시간 비롯하여 지자체의 수장들은 지역의 시민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공언하고, 이듬날 대통령 후보들도 하나 같이 대한민국 행복지수를 높일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언론들 또한 저조하기 짝이 없는 행복지수를 우려하며 국정지표에 이를 도입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왜 그런 걸까?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이제는 성장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며 행복지수를 말해도 좋은 때인가?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낙관하지만은 않다.

언제까지 앞만 보고 달려갈 것인가

'세계 최고'란 웅변하며 앞만 보고 달려온 사회에 빨간 선이 켜진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매년 평균 33명이 자살하는 나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 우리사회의 지도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행복을 말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행복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단 어떻게 해야 할까? 지도자들이 말하는 대로, 행복한 정책과 행복한 법, 행복한 제도를 만들고, 행복한 공원과 행복한 녹지환경을 조성하며, 행복한 기슭을 개발하면 우리는 과연 행복해질까? 물론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이 행복한 계획에는 뭔가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다.

빛받지못 송암이 쏟아지는 전쟁터와 아사(餓死)지역에 파견된 긴급구호요원들의 행복지수가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지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초조한 삶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역설의 이유는 바로 사람을 치유하는 사명에 참여한다는 데 있다. 굶주리고 다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단지 허기와 상처만을 달래주는 것일 때는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을 수 없다. 그들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유는 사람이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즉 생명을 나누기 때문이다. 자존감을 회복하고 용기를 북돋우어 생기와 활력을 찾게 하는 일, 사람들의 마음을 생동하게 하는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길도 전국 사람이다. 다른 도리가 없다. 지

급까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의 삶에 생명력을 되찾아주려는 노력, 그것이 매우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들을 칭찬하는 사회에서 좌절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회로 옮겨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면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다. 생각해보면, 행복은 희망의 다곤 이름이다. 오늘날처럼 희망이 희박한 사회에서 행복을 느끼기란 결코 쉽지 않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희망을 그릴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홍보대사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여성재단이 이번 5월에 그 희망과 행복지수란 동시에 높이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2007 여성희망캠페인 "딸들에게 희망을!"이 그것이다. 올해로 5년째 변이고 있는 이 캠페인은 때마다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주목해 왔는데, 올해는 '빈곤의 여성화'를 집중적으로 여론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빈곤의 여성화란 빈곤이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점차 여성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절망적인 빈곤층을 형성하는 사회현상을 의미한다.

1%의 불행에 주목하는 한국, 요원한가

최근 가족해체율이 증가하면서 갑자기 늘어난 여성가장의 존재는 우리 사회의 빈곤율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일자리를 안내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에 줄지어 늘어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가장들이다.

어느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 한국사회 여성가장의 70~80%가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직전의 차상위계층에 포진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이 빈곤층으로 대거 전락하거나, 혹은 빈곤층에서 탈출이 불가능한 절망의 빈곤층으로 주저앉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우리사회 여성계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현실이다. 여성은 세대가 높아질수록 빈곤하고(여성노인의 절대적 빈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빈곤해진다.

행복지수가 높은 북구 유럽의 나라들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민소득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성숙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성숙한 사회문화란 '국민 중 99%가 행복하고 1%가 불행한 사회는 과연 행복한 사회일까?'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1%의 불행에 함께 아파하고 그 절망에 동참하는 사회란 뜻한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딸들에게 희망을 주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여성상위시대란 열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를 높이자는 것이다.

[프레이션-여성재단 공동캠페인] '빈곤의 여성화' 극복하려면 - ②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한국여성재단 운영위원)

요즈음 한국사회의 행복지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적인 경제성장으로 선진국 대연에 합류했지만 국민 대다수는 사회양극화 현상속에서 '우리가족 잘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경쟁대열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바쁘게 살다보니 여유가 없어지고 경쟁적인 인간관계로 인성이 파괴해져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고질적인 성별분업으로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빈곤한 상태이고, 일상화된 성차별 문화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란 표현은 '빈곤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 되어가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빈곤의 여성화'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무한경쟁과 성장주의로 무장한 신자유주의가 한국의 성별 분업과 결합되면서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가사부담과 일자리 부족으로 50% 내외에 머물고 있고, 일자리를 유지하더라도 대부분은 비정규직이거나 비공식 형태로 일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늘어난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여성노동자의 70%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의 임금과 복지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임금은 62%에 불과하고 4대 보험 수혜율이 50%가 채 안된다. 특히 근로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각종 도우미', 특수고용 형태의 여성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해 최저임금 수준을 겨우 유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이혼, 배우자의 가산 등으로 인해 한부모 여성 가구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서적·경제적 지원방안과 사회안전망이 미흡하여 여성 가정은 가장 빠른 속도로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처럼 빈곤의 여성화 현상은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여성의 경제세력화를 위해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운동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 돌봄노동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둘째, 노동시장 내 성차별 해소와 고용축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직무 분리 해소, 이사·관리직 여성할당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셋째, 기간제 노동자 보호입법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과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생활과 직장의 양립 위한 정책, 남성의 단층노동 참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남성 육아휴직 한당제 의무화, 평균임금 50% 수준으로 육아휴직급여 확대, 공공보육서비스 확대, 가족친화기업 지원제도 등

다섯째, 국회에 계류 중인 한부모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 저소득 한부모의 한시적 소득지원, 양육 및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한부모지원센터 설립·운영 지원 등

여섯째, 비시장적 방식의 대안적인 협동운동을 확산해야 한다 : 생활협동조합, 육아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 등

일곱째, 정치 및 공직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결정권한을 높여야 한다.

앞에 과제들이 추진된다면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둔화시킬 수 있을까? 아마도 희망을 향해 출발한다는 것 자체가 탄빈곤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스리안-여성재단 공동캠페인] "여성이 웃어야 그 사회가 웃는다" - ③

오한숙희 (방송인, 여성학자)

며칠 전에 딸애가 다니는 일시미순학원에 학원비를 내려 갔었다. 마침 학원수업이 시작되기 전이라 이른바 면담차원에서 교실에 들러 선생님과 잠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이들이 한두 명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아이들이 밤 10시까지 작업을 하고나면 얼마나 배가 고플까. 게다가 성장기가 아닌가. 자리를 뜨면서 이왕 온 김에 저녁 세침이라도 사들여 보내고자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냐고 물었다. 스킨아홉의 예술가 선생은 애들처럼 씩 웃으며 '뭐든지 다 잘 먹어요. 없어서 못 먹죠. 뭐' 하는데 쿡하고 웃음이 나왔다. 언젠가 딸애가 '선생님이 오늘 치킨 쏘셨는데 한 점이라도 더 먹으려고 먹는 동안 한 마디도 안했다' 고 했던 말과 '선생님도 아직 이십대라 그런지 우리 못지않게 군것질을 좋아하신다.' 고 한 말이 생각나서였다. 그야말로 치열한 생존경쟁의 현장이 머리 속에 그려지자 뭇 사돈 평화롭게 먹도록 넉넉히 사야겠다는 마음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고 물었다. 그런데 갑자기 소년처럼 장난기 가득하던 교사의 얼굴이 심각해지는 것이 아닌가.

"글쎄요. 이번 달에는 몇 명이나 등록을 한 지... 지난 달까지는 그래도 11명이었는데...."

나는 얼핏 학생이 떨어지면 학원에서는 담임에게 스트레스를 준 터이니 교사 입장에서는 심각한 수밖에 없겠지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요즘 이혼한 가정이 많아지다 보니 아버지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학원을 그만두는 애들이 늘어나요. 재능 있는 애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 꿈을 포기하는 것을 볼 때 정말 가슴 아프지요."

나는 가슴이 찢어졌다. 나에게 이혼상담을 온 한부모 여성들, 나는 그들에게 자식에게도 죄책감을 갖지 말고 당당하고 멋있게 말해왔었다. 그런데 돈이 없어 자식의 재능을, 꾸민 꿈을 접게 해야 하는 현실이 있다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 나만해도 모아놓은 돈은 없어도 그러저러 자식 먹여 살리고 가르친 만하니까 정신적인 모성애에만 초점을 둔 것이었다. 부끄럽고 미안했다.

재빨리 머리 속으로 어렵계산을 해봤다. 원 60만원씩 일시까지 7개월, 420만원에다 문감과 재료비 원 5만원씩 7개월 하면 소소한 잡비까지 쳐서 500만원, 그 정도면 그 꾸민 꿈이 깃뎛하지 않은 것 같았다.

"지금 그런 학생이 있다면 제가 후원자를 한번 문색해 볼까요?"

그래도 여성재단에 한발 담그고 있는 덕에 머리가 돌아갔다.

"아이들이 원치 않아요. 동정이나 구걸은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학교에서 생활

보호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에도 얼마나 상처를 받지요”

“대학 들어가서 아르바이트해서 갚으면 되잖아요. 구걸이 아니라 대출이지요.”

마치 오백만원을 손에 들고 있더라도 한 것마냥 안타까운 마음에 공연히 설득하려는 내게 선생님은 쓴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저었다.

“사춘기의 예민한 때라 애들은 길게 못 보잖아요. 우선은 당장의 감정이고 기분 문제지요. 지난달에도 정말 아까운 녀석 하나가 학원비 못 내서 그만뒀는데 ‘나중에 돈 벌어서 제 능력으로 취미생활하려고요.’ 하고는 떠나버렸어요. 정말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못하는 슬픔과 고공으로 살은 잉그러뜨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죠....”

학원 앞의 편의점을 한참 지나 겨우 반견한 탕집에서 큰 덩어리 빵을 여러 개 사서 화선에 돌려보내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돈이 없어 자식의 재능을 썩히는 그 어미의 심정이 오죽할까. 무책임한 애비를 맞아야 하나, 이혼한 자신을 한탄해야 하나, 여자에게 돈 벌 기회란 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해야 하나, 재능있는 아이들을 키워주지 않는 무관심한 국가에 항의해야 하나.

이혼이든 사별이든, 남편이 있어도 경제력이 없든, 여하튼 우리사회에는 신질적인 여성가장이 적지 않다. 이들의 큰 고민거리가 오르는 집세와 자식 교육비이다. 집세는 점점 도심에서 먼 곳으로 이사간 가서 해결한다지만 커가는 자식들은 성장을 미룰 수 없으니 교육비가 제일 큰 고민이다. 자식들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여성가장들에게는 오아시스가 따로 없다. 자식이 저 하고픈 것을 하며 행복해할 때 모성 또한 행복하다. 자식이 행복하고 어머니가 즐거운 때 가정이 건강해지고 사회가 안정된다.

최근 국가차원에서 다출산을 권장하지만 분유값과 기저귀 지원만으로는 어렵다. 낳은 사람이, 특히 낳은 여자가 최종책임을 져야하는 ‘양육과 교육의 개인주의’가 상식처럼 되어있는 한, 출산율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이를 안 낳는 출산기피가 아니라 아이를 못 낳는 출산공포 때문이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여성재단이 여성희망캠페인과 여성가장 케어 sos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편모에 대한 편견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 에너지일 뿐이다. 그 여성을, 그 가정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어가야 한다. 내일은 다시 학원을 찾아가겠다. 꿈을 접었다는 그 학생의 어머니를 반드시 알아내 케어 sos를 소개하고 자식의 꿈과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용기를 내라고,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당신은 결코 혼자자가 아니라고 말해 준 것이다. 한 여성이 웃을 때 그 자식들이 웃고 그 자식들의 웃음은 곧 웃는 사회를 만든다. 여성가장을 향한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할 이유는 충분하고도 충분하다. 행복의 길은 뻔히 알면서 가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어리석음은 없는 것이다.